

인터넷상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언어습관 교정을 위한 개선방안

공원기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국문전공
e-mail: zzang878@naver.com

Improvement Measures for Adolescent's Unhealthy Language Habits on the Internet

Won-ki Kong
Dep.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선플 교육이 청소년의 언어 공격성 감소(또는 완화와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 대상은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www.sunfull.or.kr) 등재된 선플 참여 학교 학생 중 선플 댓글 달기 경험이 있는 전국의 중·고·대학교 학생 333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시행하였으며 연구의 간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설계는 Infante와 Wigley의 언어폭력 검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분석과 교차 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고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Fisher 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선플 운동은 청소년들에게 '봉사 시간을 위한' 수단으로 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댓글 달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직접 선플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발표, 토론, 실습 중심의 주제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응답자가 '학생 간 상호작용 강화', '교육 방식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선플 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입증되었지만, 교육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과제는 기존의 주입식,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미디어와 교육 수단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 디지털 네이티브, 청소년, 인터넷 문화, 선플 운동, 언어 공격성, 선플 운동 양하도록 한다.

1. 서론

선플은 악플의 상대 급부적 개념으로, 인터넷상의 헤이 트스피치(hate-speech), 허위 정보 유포, 근거 없는 비방 등을 추방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2007년 젊은 여성 가수가 악플로 세상을 떠난 비보를 접한 중앙대학교의 민병철 교수가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과제를 대학생 570명에게 부여한 것이 현재 '선플 인터넷 평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플 인터넷 평화 운동의 범례인 '선플 달기 교육'을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1], 선플 달기는 교육 수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선플 달기는 사이버 윤리 의식 함양을 가능케 한다. 둘째, 자아 존중감의 형성을 통한 인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선플 달기 교육은 교육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며, 차후 봉사 활동과 연결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

이와 같은 차원에서 2007년 선플운동본부가 출범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생활의 길라잡이」, 「실과」, 「중등 漢文」 등의 교과서에 선플 캠페인의 중요성을 수록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2024년 2월 기준으로 총 10,048,178개의 선플이 기록되는 등 선플 운동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선플 인터넷 평화 운동이 결코 인터넷 공간 내의 상호존중 문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하기는 어렵다. 2022년 연세대학교의 바른 ICT 연구소는 악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대 35조 3,48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악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용자는 46.5%로, 온라인 이용자 두 명 중 한 명이 악플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측정하는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는 2009년 19.3%였던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3년 10.6%를 기록하였다고 공시하였다[3]. 이는 선플 달기 교육이

교육 수용자에게 큰 영향을 일으키지 못하였으며 자발적인 봉사 활동 참여에 실패하였음을 암시한다.

선플 달기 교육이 봉사활동의 도구적 특성만을 내세워 그 내면화에 실패하였음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현황과 자원봉사 참여율을 통해 귀추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플 활동이 교육 수용자에게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교육해 지속가능한 상호 존중적 인터넷 문화를 도모하려면 교육 수용자가 교육하고자 하는 바를 내면화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개인의 언어 공격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언어 공격성의 실태와 함께 언어 공격성과 인터넷 활동 방향성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선플 달기 교육으로 인한 변화를 측정하여 기존의 선플 달기 교육의 효과를 수치화하며 그 실질적 효과와 한계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현행 선플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선플 달기 교육의 실질적 교육 수용자들이 본 교육의 효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선플 참여 학교 학생 중 선플 댓글 달기 경험이 있는 전국 중·고·대학교 학생 333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연구의 간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 (결측값제외)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158	47.4
	여성	175	52.6
학력	중학교	122	36.6
	고등학교	140	42.0
	대학교	71	21.3
지역	수도권	185	55.6
	경상도	13	3.9
	전라도	64	19.2
	충청도	37	11.1
	강원도	34	10.2
선플 참여 기간	1~3개월	141	42.3
	3~6개월	30	9.0
	6~12개월	69	20.7
	1~3년	64	19.2

2.2 연구도구

청소년의 언어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해 문항의 ‘매우아니다’(1점) - ‘매우그렇다’(5점)의 응답 결과를 통계 분석하고 이 외 문항들을 분석하여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다. 선플 교육을 받은 기간과 지역에 따른 응답 결과 비교와 기타 란에 기재된 응답에 대한 질적 분석 또한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선플 교육에 대한 피교육자의 주관적 만족도, 선플 교육의 교육 효과, 청소년의 언어 공격성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진행하였다.

[표 2] 범주에 따른 설문 내용과 문항의 분류

범 주	내용	문항 번호
기본 정보	성별, 학력, 지역, 참여 기간	4 (1~4)
인터넷소셜 미디어 사용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 문제점, 원인	3 (5~7)
선플교육으로 인한 대상자의 인식 변화	선플 교육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의 변화, 스트레스, 성취감, 자기통제 능력, 목표 설정, 불안감, 위기 대처 능력	7 (8~14)
대상자의 언어 공격성 인식	언어적 공격의 유무, 영향, 변화의 필요성, 소셜 미디어와의 관련성, 교육 형태,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언어 공격성 완화	7 (15~21)
현행 선플 교육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	선플 교육의 만족도, 선플 교육과 현실에서의 연관성, 내용의 유용성, 교육의 개선 방향, 선플 교육의 공유 활동, 댓글 달기의 동기	7 (22~28)

2.3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4년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23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는 인터넷(네이버 폼)을 통해 조사한 총 33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각 학교의 교사를 통하여 배부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밝히고 성실히 응답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선플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하였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경우 불성실한 응답자들을 교사가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해당하는 학생의 설문지는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하였다.

2.4 자료분석

회수된 자료는 Infante와 Wigley의 언어폭력 검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과 교차 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고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Fisher 검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선플 교육과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 조사

[표 3] 선플 교육으로 인한 대상자의 인식 변화 분석 (결측값 제외)

	매우 아니다.	40	12.0
선플 교육으로 인해 다른	아니다.	27	8.1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보통이다.	82	24.6
생각이나 행동이 줄어들었다.	그렇다.	95	28.5
	매우 그렇다.	89	26.7
	매우 아니다.	42	12.6
선플 교육으로 인해	아니다.	29	8.7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보통이다.	92	27.6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85	25.5
	매우 그렇다.	85	25.5
	매우 아니다	40	12.0
선플 교육으로 인해	아니다	31	9.3
학교에서의 성취감이	보통이다.	99	29.7
높아졌다.	그렇다.	78	23.4
	매우 그렇다.	85	25.5
	매우 아니다	38	11.4
선플 교육으로 인해	아니다	31	9.3
자기통제 능력이 향상되었다.	보통이다.	82	24.6
	그렇다.	91	27.3
	매우 그렇다.	91	27.3
	매우 아니다	44	13.2
선플 교육으로 인해 명확한	아니다	25	7.5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이	보통이다.	97	29.1
높아졌다.	그렇다.	79	23.7
	매우 그렇다.	88	26.4
	매우 아니다	45	13.5
선플 교육으로 인해	아니다	32	9.6
불안감이 개선되었다.	보통이다.	97	29.1
	그렇다.	76	22.8
	매우 그렇다.	83	24.9
	매우 아니다	44	13.2
선플 교육으로 인해 위기	아니다	31	9.3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	보통이다.	80	24.0
	그렇다.	86	25.8
	매우 그렇다.	92	27.6

위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할 때, 선플 교육은 악플 감소 외에도 교육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공격성 감소, 스트레스 관리, 학교생활에서의 성취감, 자기통제 능력, 목표 설정 능력, 위기 대처 능력에서 과반의 응답자(‘그렇다’, ‘그렇지 않다’)들이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선플

교육이 청소년들의 생활세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플 경험은 대학 생활의 적응과 자아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선플 교육이 갖는 교육적 함의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4] 다만, 전반적인 문항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선플 교육으로 인한 대상자의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뤄진 비율이 과반 내외라는 점에서 교육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포섭할 수 있는 선플 교육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언어 공격성 인식에 대한 빈도 분석(결측값 제외)

변수	항목	빈도	%
언어적 공격 경험	예	170	51.1
	아니오	163	48.9
언어적 공격의 영향	관계 악화	218	65.7
	무관심	30	9.0
	상호 이해 증가	13	3.9
	대화 불가능	70	21.1
	기타	1	0.3
언어 공격성 감소를 위한 변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	70	21.0
	대화와 소통 증진	82	24.6
	차별 강화 등의 정책 개선	132	39.6
	전문가 상담 기관 증대	30	9.0
SNS와 언어 공격성 관계	외부 기관 신고 기관 증대	19	5.7
	전혀 관련이 없다.	23	6.9
선플교육과 언어 공격성 이해 교육의 제공 형태	별로 관련이 없다.	18	5.4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126	37.8
	매우 관련이 있다.	148	44.4
선플교육과 언어 공격성 이해 교육의 제공 형태	모르겠다.	18	5.4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강의	30	9.0
	대면 강의	111	33.3
	팜플릿 및 안내서	38	11.4
	워크숍 또는 캠페인	108	32.4
불필요한 이유	온라인 자료 제공	46	13.8
	언어 공격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로 간주	46	13.8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	67	20.1
	선플 교육은 현실적이지 않고 시간과 자원 낭비	78	23.4
	스스로 언어 사용에 대한 책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존중하고 수용	99	29.7
선플의 효과성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43	12.9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36	10.8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54	16.2
	매우 효과적이다.	162	48.6
	모르겠다.	62	18.6
		19	5.7

위의 결과를 분석할 때 선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체

의 67.2%가 긍정하는 것으로 보아 선플의 효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나 선플 운동 참여가 일원화된 방식의 선플 운동에서 이뤄지는 일관적인 선플 달기 등에 따른 부담을 느끼며 일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플 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언어 공격성을 낮춘다는 연구처럼 선플 활동의 경험과 언어 공격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선플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혹은 피드백 과정에 대한 연구나 선플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탐색하는 작업들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의심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선플 운동은 아직 선플 운동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로의 확장성을 피하면서도, 선플 운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던 사람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강한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논의 및 결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인간 생활의 당연한 일부가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인류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이모티콘, 밈(meme), 약어와 줄임말, 의도적인 오타 등 특유의 언어문화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소년 세대는 사회적 터부 등의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언어생활을 체화하는 가능성을 배태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의 조사·연구들은 상당수의 청소년이 일탈적 성격이 짙은 독특하고 독자적인 인터넷 언어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터넷의 특성 뿐만 아니라, 맞벌이 증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특성, 또래 생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려 부정적인 청소년의 언어생활이 비가시적인 보편적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생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강조였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사회를 향유하는 현대인의 필수 덕목이자 감수성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급간의 학교에서도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의 소비, 생산, 유통 등의 과정에서 지녀야 할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선플 운동의 등장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언어생활과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축이 되었다. 즉, 선플 운동은 범국민적 사회 운동이지만, 학교 내 교육 및 동아리 등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된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선플 운동이 청소년의 언어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입증되기도 했다. 스트레스 관리, 성취감, 자기통제 능력, 목표설정, 불안감 개선, 위기 대처 능력과 같이 인지적 측면은 물론, 온라인과 현실 세계에서의 언어생활에도 긍정적인 제 본 효과를 낳고 있음이 실증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플 운동은 청소년들에게 ‘봉사 시간을 위한’ 수단 등으로 다소 비화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댓글 달기에만 국한되는 현행 선플 운동 방식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직접 선플 콘텐츠나 게시글을 제작 및 업로드해 보거나 발표, 토론식, 실습 중심 활동 등의 주체적인 선플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선플 교육의 개선을 위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강화’, ‘교육 방식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70% 이상이었다는 것도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선플 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선플 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과제는 주입식, 강의식 선플 교육에서 벗어나 정형적인 교육 틀을 깨고 학생들의 주체적 활동을 장려하면서 다양한 미디어 및 교육 수단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본 논고의 제언은 향후 선플 운동의 새로운 전환에 이바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근일, “청소년들의 선플 활동이 공격성과 혐오 표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년.
- [2] 이석희(2022), 악플 때문에 연간 35조원이 날아간다고?, 《뉴스웨이》, 2022.10.19. <https://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101908354308123> (2024.05.31. 접속).
- [3] 통계청. “자원봉사참여율”, 사회조사. 2023년.
- [4] Min, B. C., Oh, K. S., & Yun, S. Y., “Relationship Between a College Student’s SNS Sunfull-Writing Experience(writing positive comments) and Ego-resilience/Adaptation to College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for Education* 4(2), pp. 3-6. 2019.